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환경주의

조민서 (위스콘신대학교 박사수료)

- 본 발표의 내용은 2024년 <<경제와사회>> 144호에 실린 동명의 논문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 기후/정치에 대한 몇가지 장면들

한번도 듣지 못한 대답  
기후 단일 의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 촉구

## 기후문다 캠페인 기자회견

2025년 4월 15일(화)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광화문 광장 쪽)



주최 | 기후정치바람 · 기후위기비상행동



미래&과학 과학

## '기후경제부'든 '기후에너지부'든, 만들긴 해야

기후변화 '쫄' 아는 기자들

박기용 기자

수정 2025-04-16 19:15 등록 2025-04-16 18:24

# SFO°C

기후솔루션 Solutions for  
Our Climate



청소년기후행동  
Youth 4 Climate Action

# 기후/정치에 대한 몇가지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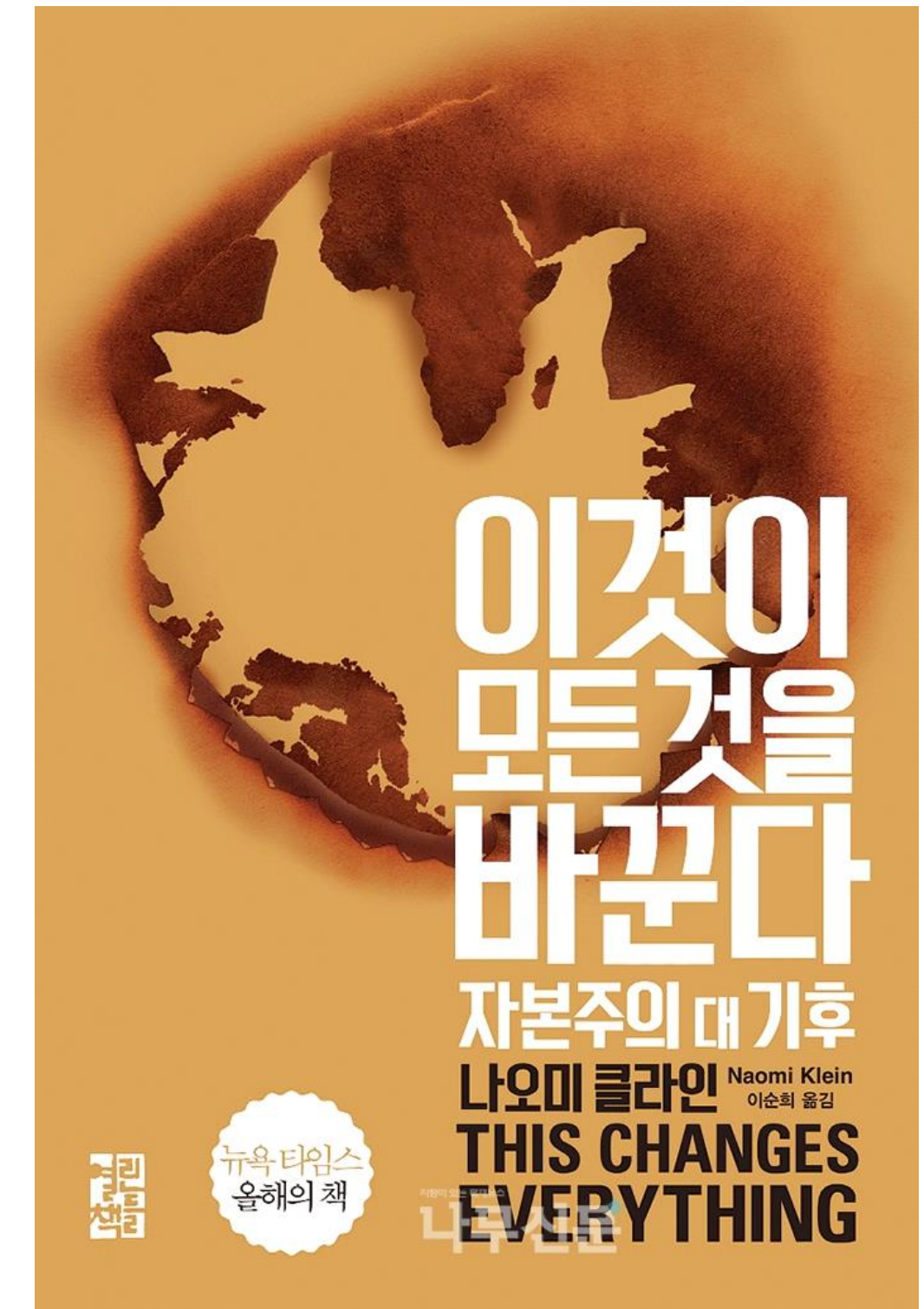
#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World Climate Industry EXPO





# 자본주의 대 기후: 자본주의는 기후의 적이다?

- 기후위기: 자본주의 하 생태(ecology)-경제(economy)갈등
- “녹색은 새로운 적색(Nigel Lawson)”이라는 자유시장주의의 교리에 맞서 화석자본을 규제하기
- 블로카디아: 화석연료 추출주의에 맞선 투쟁의 연대



# 지구를 구하자, 자본주의로부터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함께

- “녹색(지속가능, 생태, 저탄소, 기후)” 자본주의의 부상
- 탄소중립, 탄소예산, 탄소가격, 탄소시장,
- ESG, RE100,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 희망 혹은 기만?

**GREEN  
CAPITALISM**

*Why It Can'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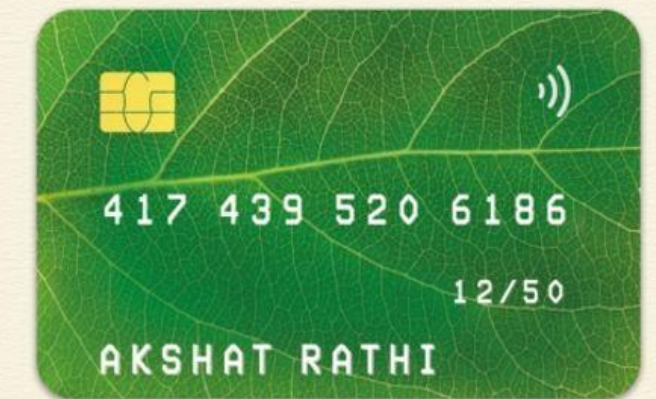


DANIEL TANURO

'An important read for anyone in need of optimism'  
Bill Gates

**Climate  
Capitalism**

**Winning the Global Race  
to Zero Emissions**



'Illuminating, dazzling and deeply reported'  
David Wallace-Wells

# 자본의 환경주의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는 무엇인가?

1) 생태위기로서 기후위기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녹색'의 의미는 무엇인가?

3) 녹색 자본주의 안팎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기후위기의 특성

## -기후변화

인간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의 대기권 순환 및 온난화 효과 ->

기온과 날씨의 변화

-기후위기: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

-기후변화의 원인 = 온실 가스를 구성하는 탄소 순환의 특성

- 1) 물질성
- 2) 공간성
- 3) 시간성



# 1) 탄소순환의 물질성

- 탄소는 즉각적으로 인간 신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 총량으로서 작용하는 물질
- 직접적인 감각 불가능성 -> 표상과 관리의 필요성 초래

Ex) 탄소중립, 탄소상쇄, 탄소예산, 탄소발자국

\*만물의 기후화(climatization) 및 탄소화: 원자력, 소, 비행기, 조림사업



## 2) 탄소순환의 시간지평

- 탄소는 수백 년 이상 지구 대기를 순환
-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
  -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화되는 여파: 미래세대를 향한 ‘느린 폭력’(닉슨, 2021)
- 누적된 탄소배출량이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으면 회복 불가
  - 미래의 기한이라는 공유된 목표점을 형성
  - ‘미래세대’라는 표상의 부상



### 3) 탄소순환의 공간지평

- 탄소는 균등 혼합 오염물질로서, 지구 전역을 이동
  - 땅earth이 아닌 지구Earth의 문제
- 탄소 순환의 원인과 결과 간 공간적 불일치
  - 무임승차: “외부성”과 “시장실패”라는 진단
  - 기후정의, 기후부채의 문제: 책임 소재와 피해 감당의 불비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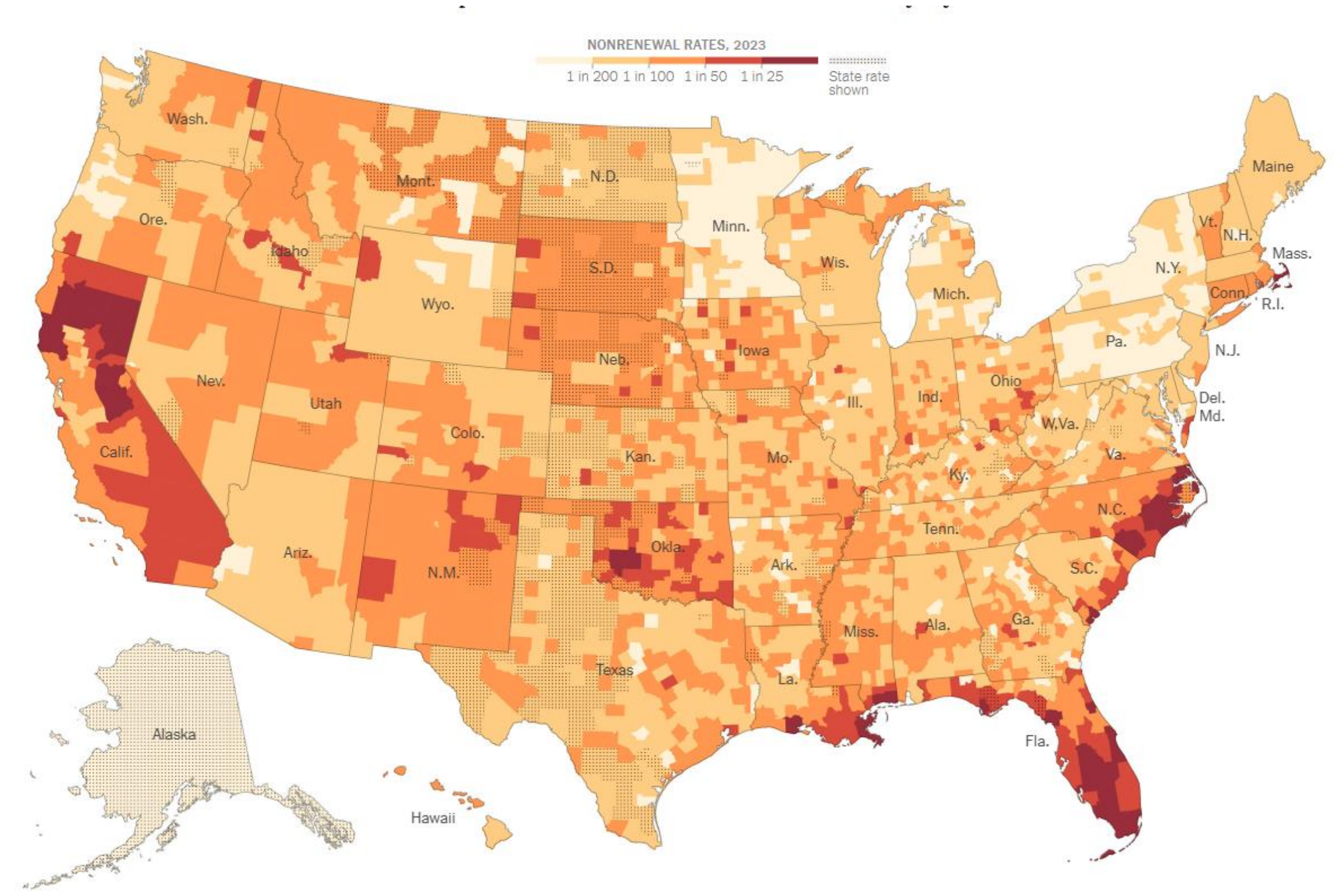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특성

- 공간: 원인의 측면에서는 전지구적, 결과의 측면에서는 지역적
- 시간: 서서히 진행되지만, 불가역적 변화를 초래
- 종합하자면, 기후위기의 존재 양태는 이중적. 기후변화의 시공간은 한없이 넓고 길지만, 구체적인 기후변화의 귀결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화
- 곧 “기후위기의 여파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관점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이지만, 먼 미래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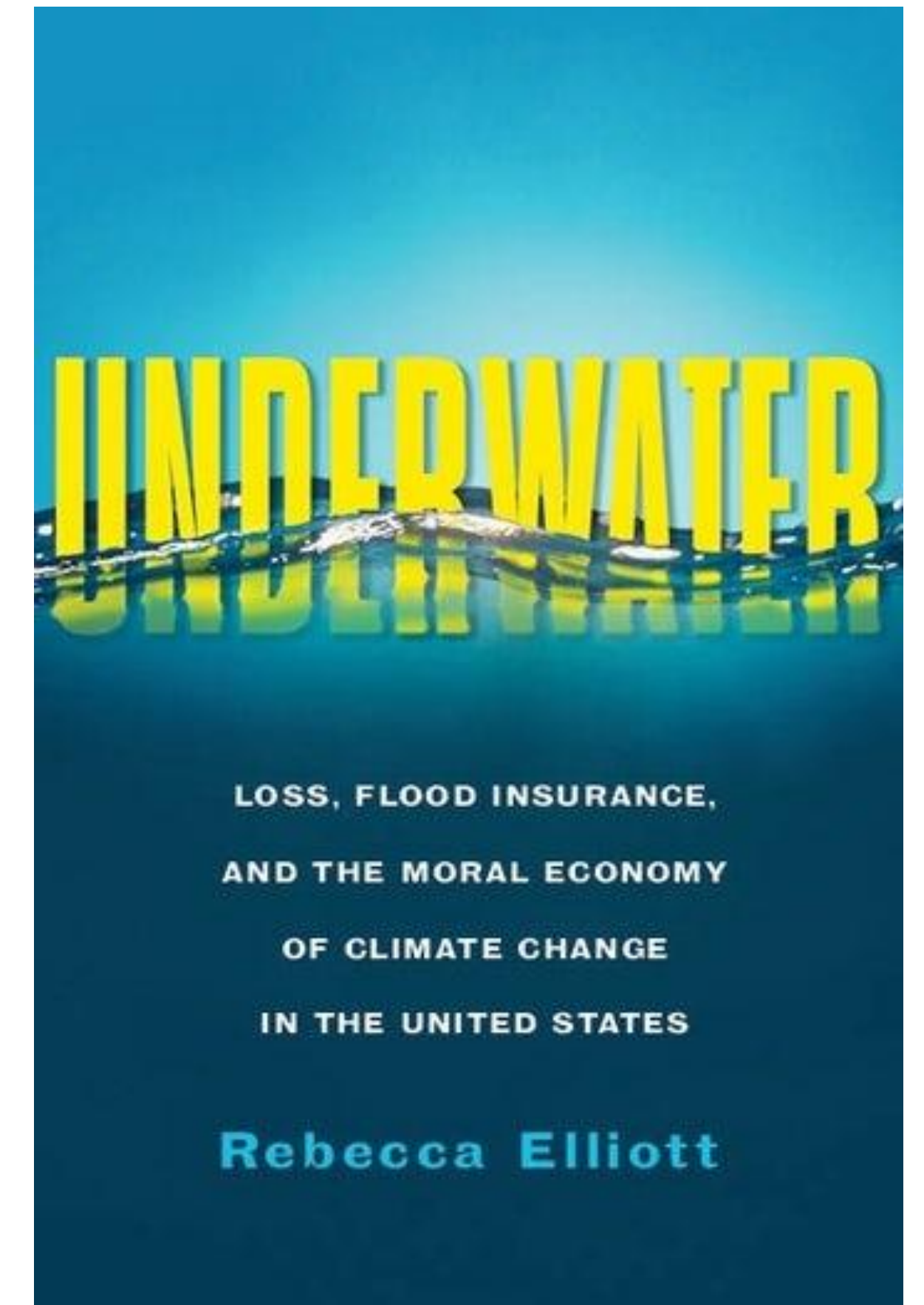


# 적응: 대비와 복구, 인프라의 정치





# 적응: 대비와 복구, 인프라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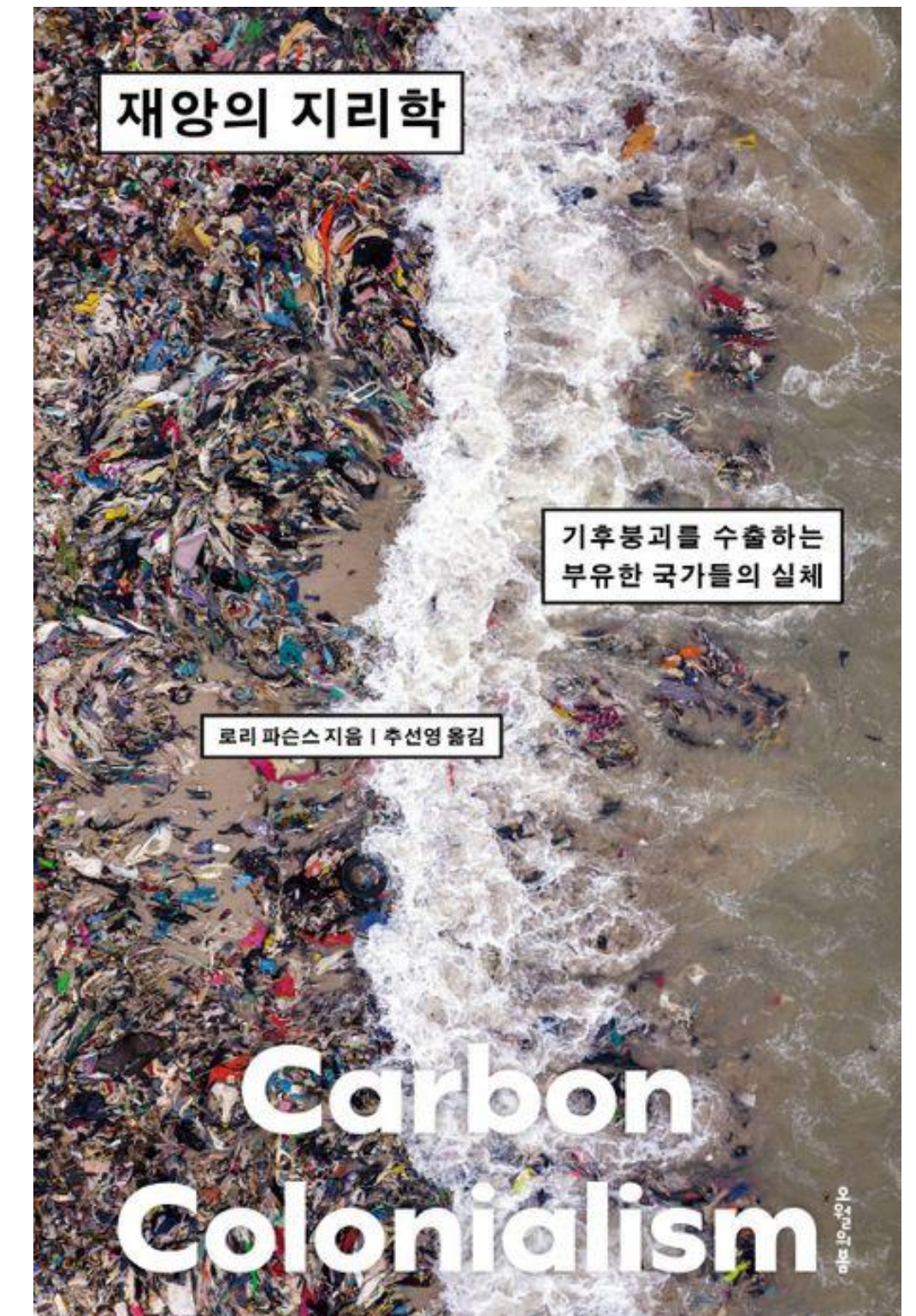
# 적응과 감축

기후위기의 문제	기후변화의 여파	전지구적, 반영구적 기후변화 과정
과제	적응(adaptation)	감축(mitigation)
시간	과거와 현재의 재난에 대한 대응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최소화
공간	로컬의 문제	전지구적 문제
의제	인프라의 구비, 상실에 대한 보상	탄소와의 전쟁

# 감축: 전지구적 차원의 탄소와의 전쟁

- 탄소순환의 공간지평은 ‘전지구적 공유지’이므로, 전지구적 대응이 요청됨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2015년 파리협정)”
- 물론, 물질대사 균열의 생태제국주의적 전가는 계속됨
  - 탄소 배출의 공간적 전가
  - ‘저탄소’ 에너지 생산의 외부화
  - ‘그린’ 인프라 건설을 위한 추출주의와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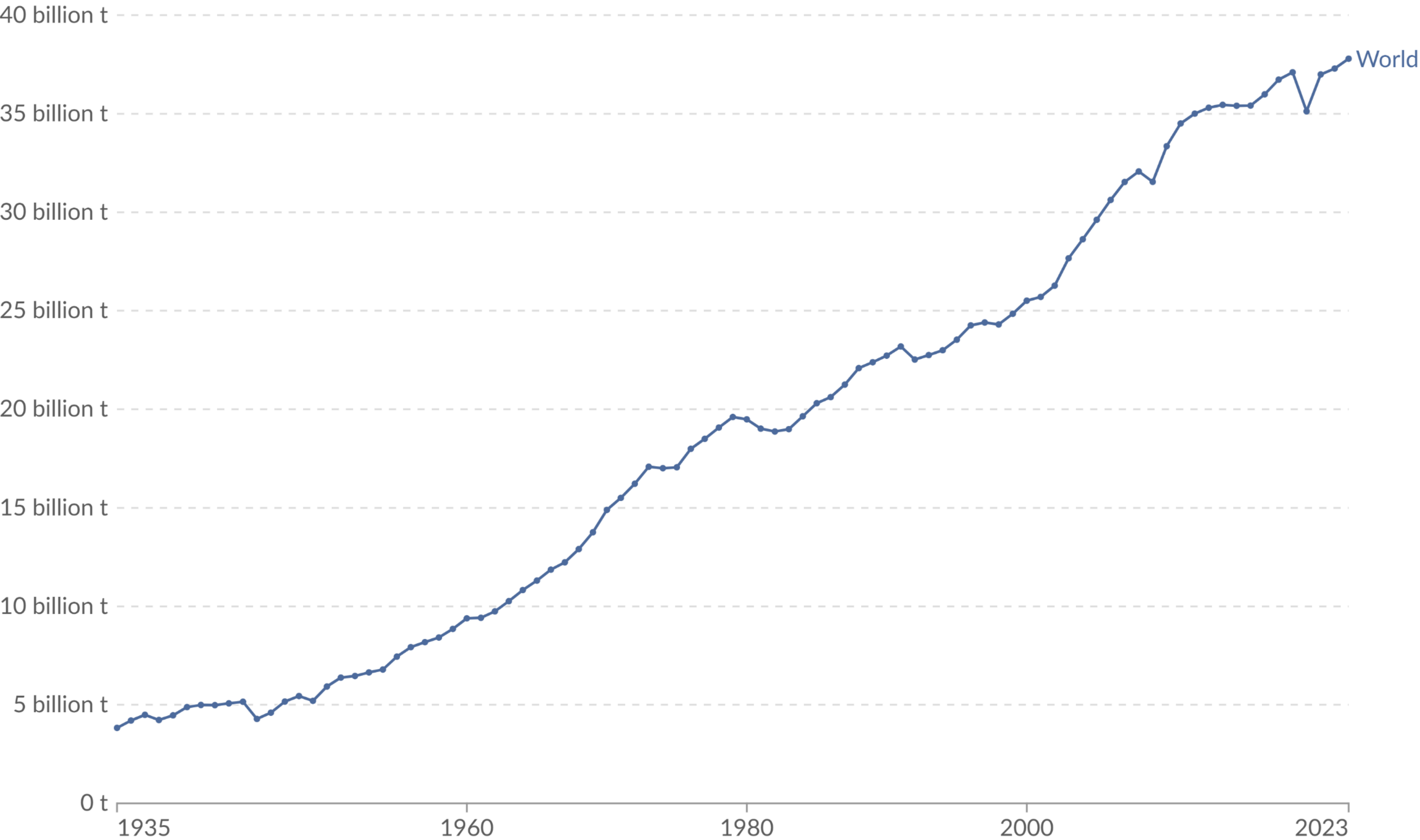
# 감축: 전지구적 차원의 탄소와의 전쟁

- 그럼에도, 기후변화의 파장은 궁극적으로 지구를 거주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명에 해당되는 문제
  - "인류", "미래세대", "지구" 등 보편주의적 수사학의 범람
  - 행성적 기후 거버넌스라는 "세계주의적 계기"(Beck, 2009)
-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경우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후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외교의 무대: 교토에서 파리까지



# Annual CO<sub>2</sub> emissions

Carbon dioxide (CO<sub>2</sub>) emissions from fossil fuels and industry<sup>1</sup>. Land-use change is not in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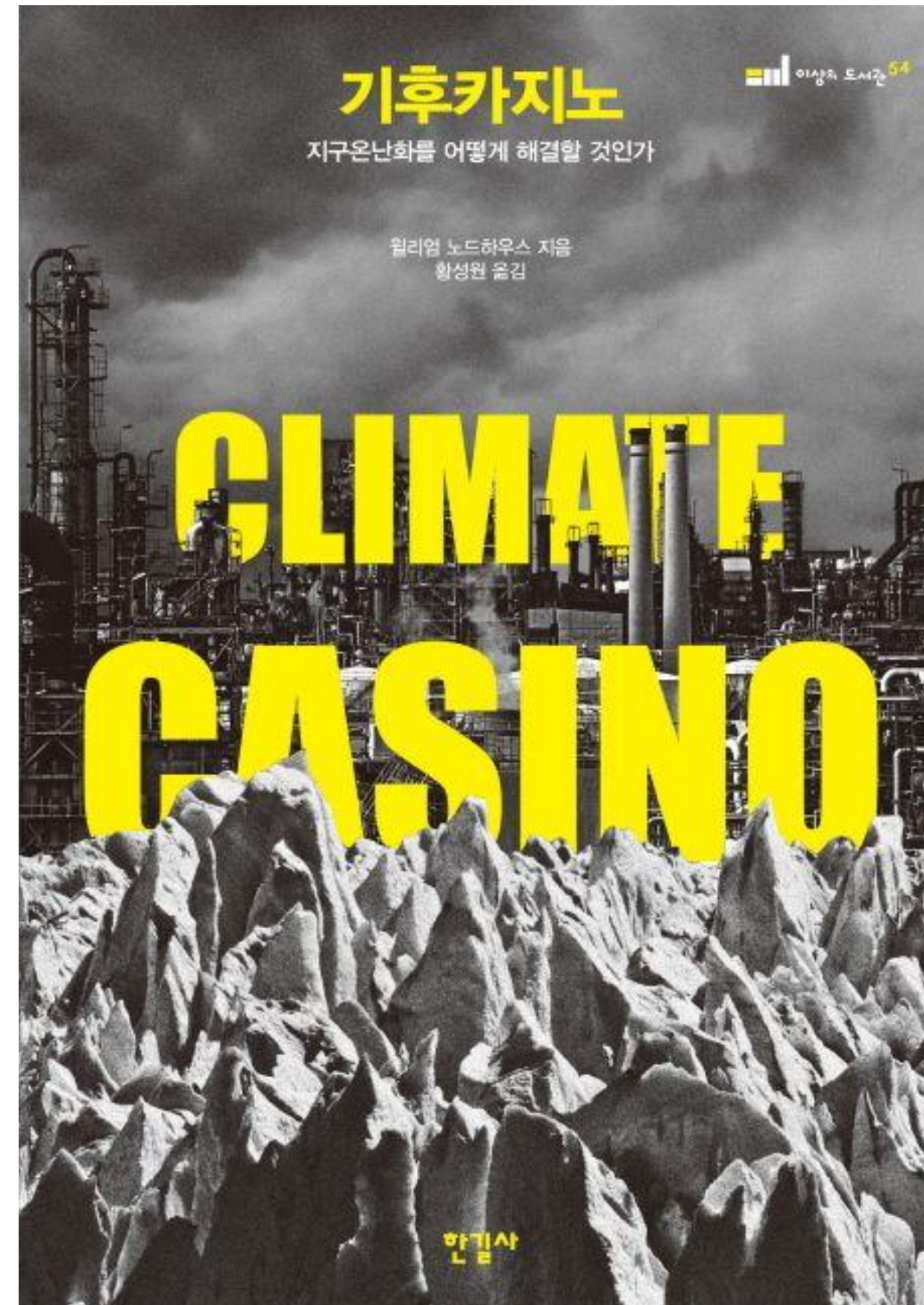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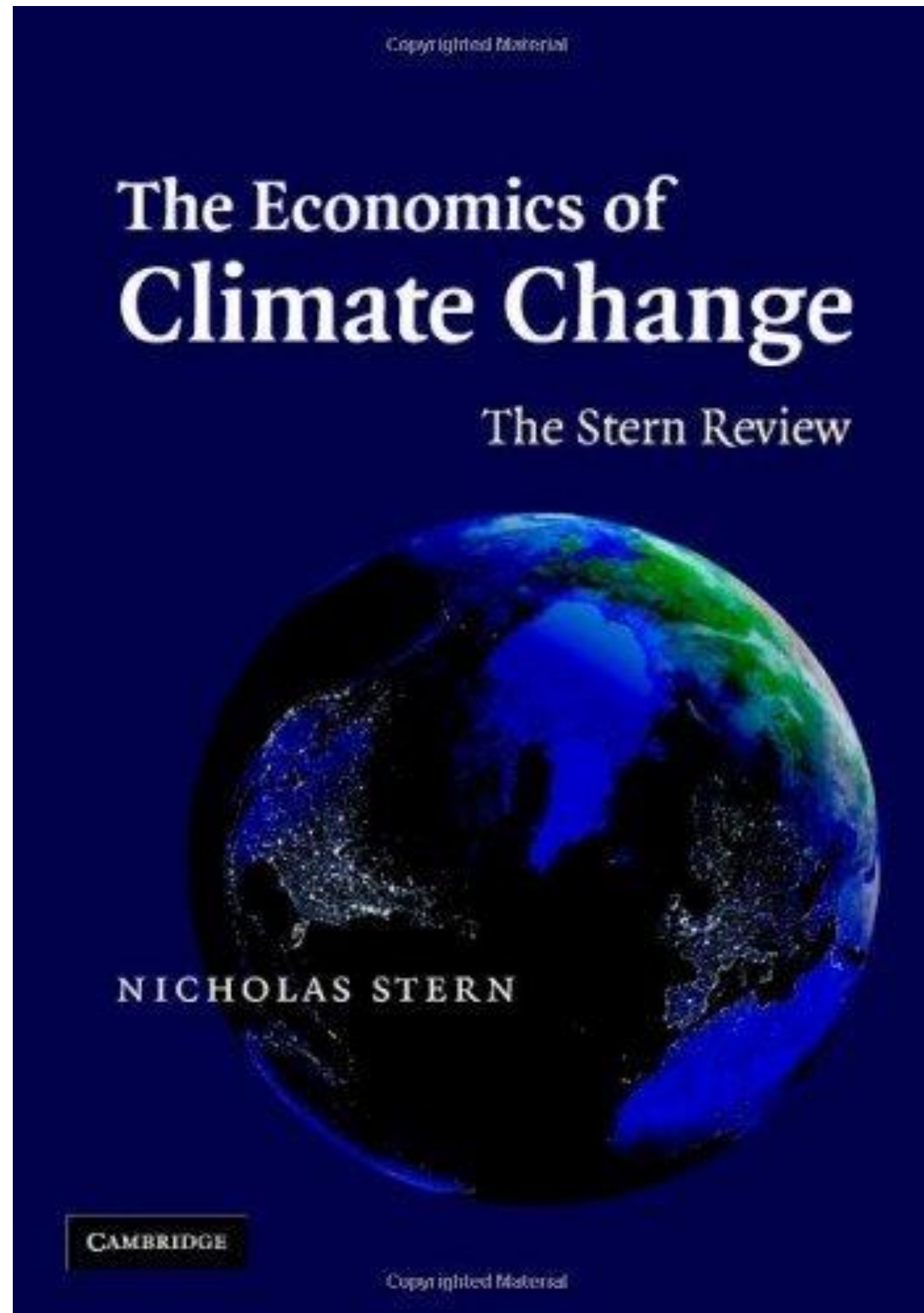
Data source: Global Carbon Budget (2024)

[OurWorldinData.org/co2-and-greenhouse-gas-emissions](https://OurWorldinData.org/co2-and-greenhouse-gas-emissions) | CC BY

**1. Fossil emissions:** Fossil emissions measure the quantity of carbon dioxide (CO<sub>2</sub>) emitted from the burning of fossil fuels, and directly from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cement and steel production. Fossil CO<sub>2</sub> includes emissions from coal, oil, gas, flaring, cement, steel, and other industrial processes. Fossil emissions do not include land use change, deforestation, soils, or vegetation.



#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 자본주의의 문제화





#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 자본주의의 문제화

- 시장과 외부성

- 정치적 강제나 윤리적 규범이 아닌 경제적 효율의 문제
- '탄소'라는 외부성의 내부화: 시장기제 (가격, 정보를 활용)
-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는 인센티브 구조의 마련
-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BM), 탄소세...



# “녹색” 자본주의

- 녹색 산업

- 1) 산업의 녹색화: ESG, RE100

- 2) 녹색 산업: “클린테크”, “기후테크”

- 그린 뉴딜

- 경제와 녹색의 행복한 동행?

- 경합하는 구상들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 “녹색”이라는 기표의 분열과 경합





# 기후정치의 세 가지 전선

- 녹색 자본주의: 경제 제반의 탈탄소화라는 국가-산업-금융의 기획
- 이 프로젝트 안팎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화
  - 1) 회색 대 녹색: 녹색 자본주의와의 대립
  - 2) 녹색 대 녹색: 녹색 자본주의 내부의 경합
  - 3) 녹색 자본주의 대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녹색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



# 기후정치의 세 가지 전선

회색 vs 녹색



녹색 vs 녹색



녹색 자본주의 vs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 회색 대 녹색의 대립

- 장소: 화석자본 대 ‘나머지’의 구도에서, 후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갈등
- 질문: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얼마나 시급히) 대응할 것인가?
- 내기물: 부정론 및 새로운 부정론(앤더슨, 2023)과의 갈등
  - 녹색/회색을 선/악으로 치환하는 마니교적 이분법의 형식 (“기후 악당“)
  - 갈등의 내기물: 기후변화의 실재성에 대한 **인정**,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선언**,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곧 기후과학의 정언명령을 규범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문제



# 회색 대 녹색의 대립: 삼척블루파워 반대운동의 경우





# 녹색 대 녹색의 경합

- 장소: 회색에 대한 승리를 거둔 녹색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합
  - 시장에서 ‘경제의 탈탄소화’라는 규범을 공유하며 경쟁하는 개별 경제 주체들 간에 발생
  - 기후 대응의 무정부성을 지양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을 입안하는 현장에서 발생
- 질문: 무엇이 녹색인가?
  - ”녹색”과 관련된 지표의 인플레이션이 불러오는 규제와 관리
  - Cf) ”그린워싱”이라는 비판 문법의 성립 조건
- 내기물: “녹색”의 조작적 정의, 측정, 계산, 지표화, 등급화, 분류, 인증
  - 시장을 통한 탈탄소화라는 규범 자체는 경합의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효과



# 녹색 대 녹색의 경합: 원자력에 대한 분류 투쟁

한국형 K-TAXONOMY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12









# 녹색 자본주의에 맞서는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 장소: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외부의 도전
  - 회-녹 대립, 녹-녹 경합과 연관되지만, 두 갈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적대
  -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원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아닌 체제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요구
- 질문: 무엇을 위한 녹색인가?
  - ‘녹색’을 주어진 대전제로 삼기보다, ‘녹색’이 논의되는 대전제로서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시
    - 1) 녹색 자본주의가 ‘감축’ 목표에서 노정한 무능
    - 2) ‘감축’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부담 전가
    - 3) ‘적응’에 대한 녹색 자본주의의 무관심
- 내기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의 변화
  - 교차적 운동: 노동, 젠더, 인권, 빈곤, 선주민, 인종 등 다기한 운동을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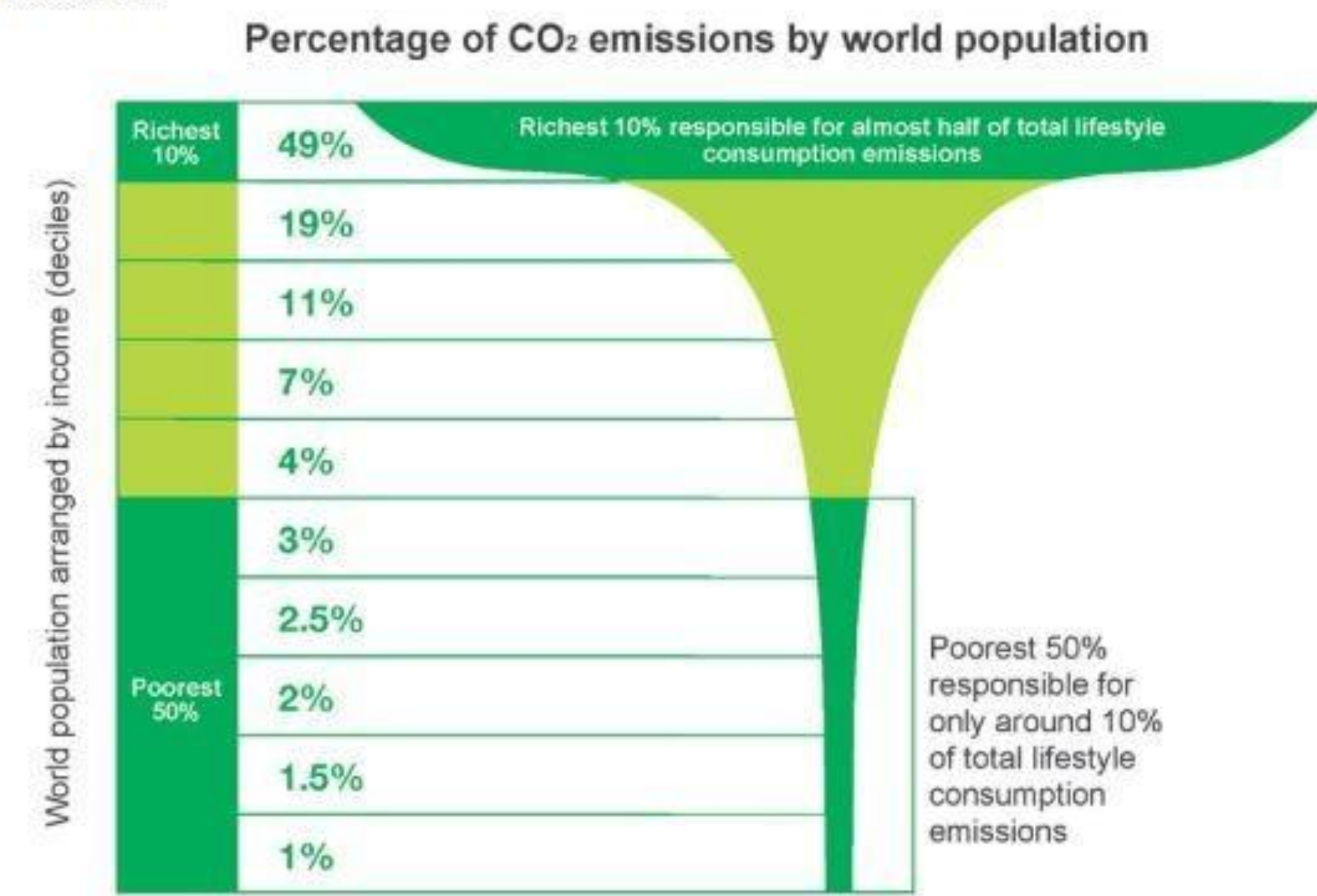
#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①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 ③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Figure 1: Global income deciles and associated lifestyle consumption emissions



Source: Oxfam





# 기후 정치의 유형들

	회-녹 대립	녹-녹 경합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질문	기후위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이 녹색인가?	무엇을 위한 녹색인가?
주인공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가 vs 나머지	녹색 자본주의자 (산업자본, 금융자본, 각 국 정부)	운동가
갈등의 양상	회색의 녹색화에 대한 요구	(위장된) 녹색에 대한 규제	물화된 녹색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변혁



# 기후정치의 세 가지 전선

회색 vs 녹색



녹색 vs 녹색



녹색 자본주의 vs 포스트-자본주의 정치





# 나가며

사회주의적 비판	생태주의적 비판
사회문제 (social question)	인류세 혹은 (자본세)
자본 대 노동	‘인간(자본)’ 대 자연
착취의 도덕적·사회적 한계	추출과 발전의 생태적·행성적 한계
노동력의 탈상품화	‘외부성’의 계산 산입
사회적 위험	물리적 위험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
경제적인 것 –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 환경적인 것
복지자본주의	녹색자본주의

#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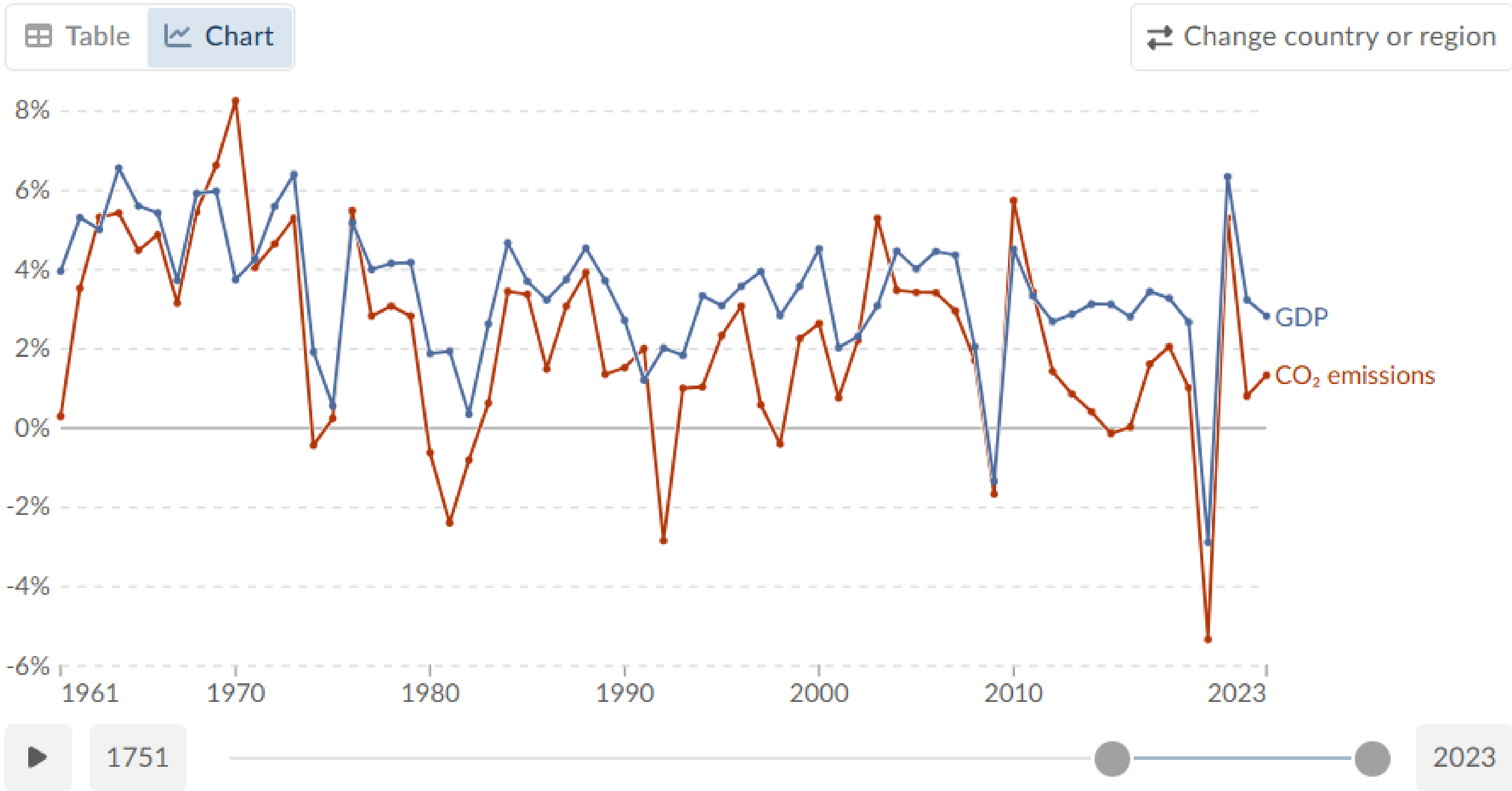
- 복지자본주의와 녹색자본주의 간의 관계
  - 1) 복지국가-탄소민주주의의 성공적 작동이 맞닥뜨린 ‘성장의 한계’
  - 2) 복지국가-케인즈주의를 가능케 했던 조건의 부재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생태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
  - 3) 복지국가라는 국민적-사회적 국가에 내연한 국민주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로 하는 스케일의 공간적 불일치
- 사회주의적 비판과 생태주의적 비판은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



# Annual change in GDP and CO<sub>2</sub> emissions, World

Our World  
in Data

Percentage change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carbon dioxide (CO<sub>2</sub>) emi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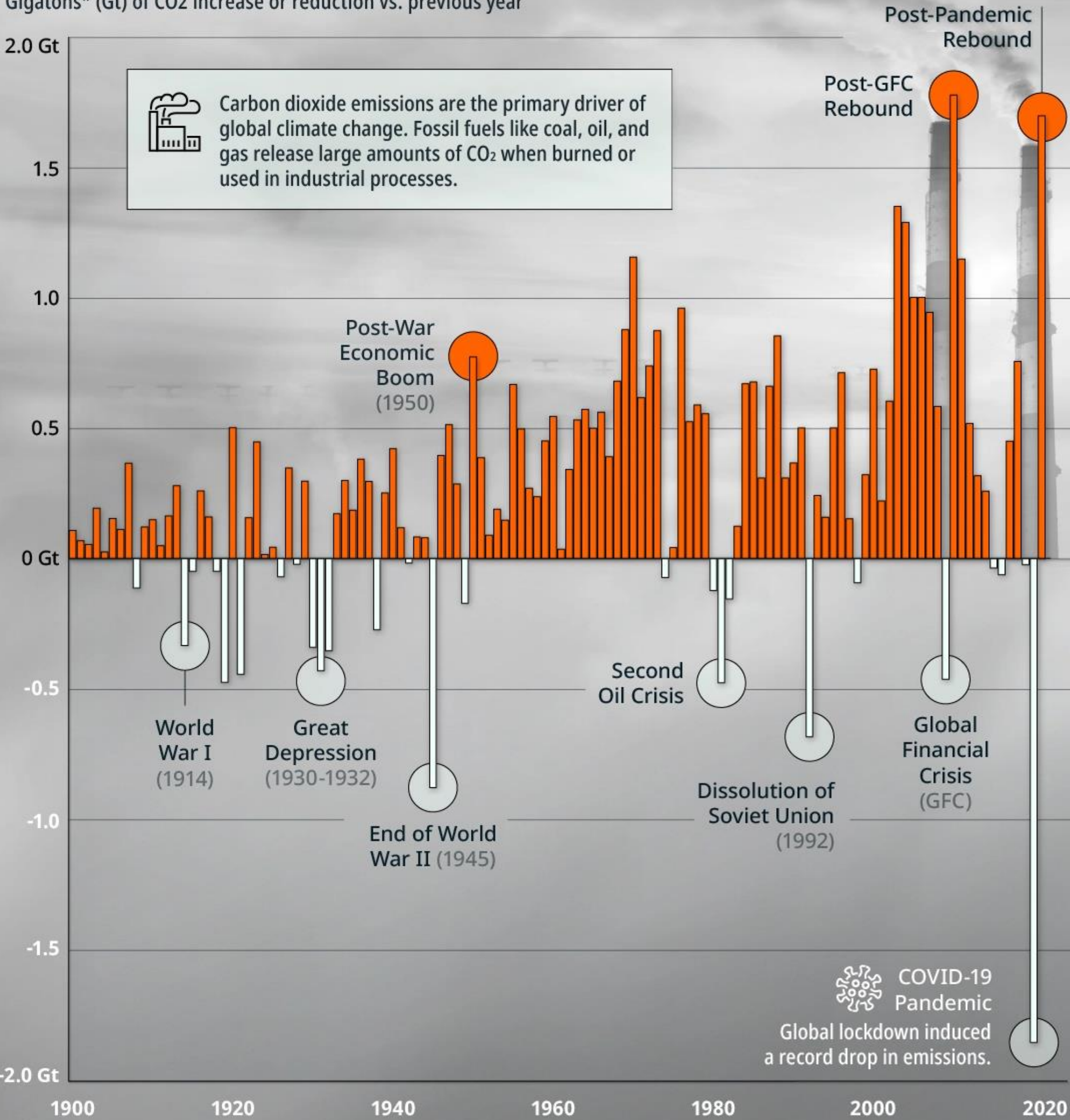


Data source: World Bank and OECD (2025); Global Carbon Budget (2024) - [Learn more about this data](#)

# Visualizing CO<sub>2</sub> EMISSIONS SINCE 1900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s led to the biggest drop in CO<sub>2</sub> emissions.  
The level of CO<sub>2</sub> emissions has, however, risen since the pandemic.

**GLOBAL FOSSIL CO<sub>2</sub> EMISSIONS** Annual Changes  
Gigatons\* (Gt) of CO<sub>2</sub> increase or reduction vs. previous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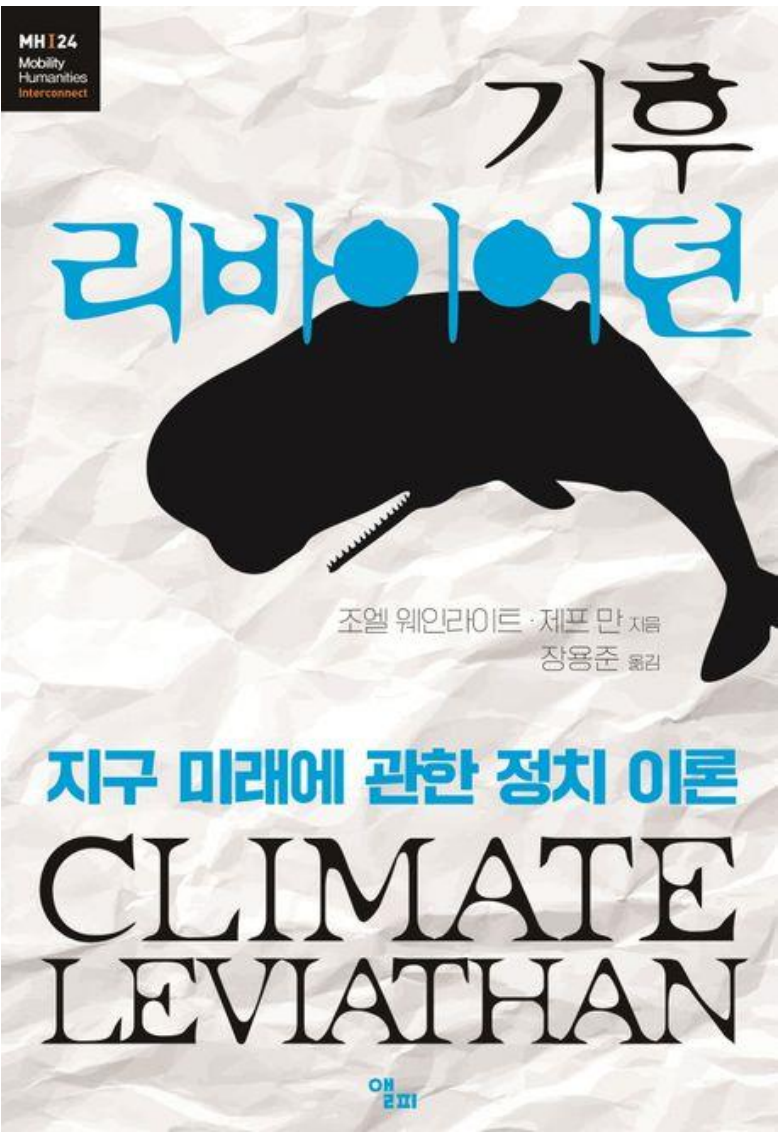


\*Equivalent to one billion metric tons



# 나가며

-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기후 베헤모스로?
  - 트럼프즘 2.0과 우익 포퓰리즘: 녹색자본주의가 맞이한 썰물의 시간 ?
  -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위기, 자유주의 기후정치의 위기?



	행성적 주권	반-행성적 주권
자본주의적	<b>기후 리바이어던</b>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 세계시장을 매개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b>기후 베헤모스</b> 화석 자본주의의 지속 우익 포퓰리즘과 국민주권, 권위주의
비자본주의적	<b>기후 마오(혹은 레닌)</b> 반자본주의적 발전 모델 비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	<b>기후 X</b> 생태사회주의 혹은 탈성장 코뮤니즘? 탈식민화된 발전의 비전